

# 광주 AI영재고, GIST·AI 집적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 첨단3지구 7000평 규모에 내년 착공...2027년 3월 개교 목표 지스트·국가AI데이터 센터 등 접근성 고려...인프라 활용 강점

광주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북구 오룡동 486 일원)에 들어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단과 만나 "광주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할 핵심 기관인 AI 영재고 설립 부지를 AI 집적단지 바로 옆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부지 크기, 유해시설이 없는 주변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폈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지스트(GIST)와의 접근성이었다"면서 "AI영재고는 지스트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스트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I 영재고 부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광주시는 애초 이 곳 2만 3100여㎡에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18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비에 부담을 느껴 광주 전역 20여곳을 대체 용지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용 절감과 조건을 모두 충족할 부지를 모색하기 여의찮은 데다가 AI 시설 집적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GIST 인근으로 최종 확정했다. 해당 부지는 광주도시공사 소유로, 180억여원의 부지 매입비도 사실상 광주 발전 관련 사업비로 활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5층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시청 주요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다음 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 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영재고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1월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

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AI 영재고는 1000여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만 40㎡, 지하 1~지상 5층 규모 학습 연구동과 기숙사를 갖춘다. 정원은 150명으로 매년 50명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총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무학년·졸업학점제를 운영한다.

특히 인공지능 융합 교과가 편성되며, AI집적단지의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도 제공 받게 된다.

강 시장은 "AI영재고는 광주의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책임기관으로, AI대표도시 구축에 든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AI영재고가 첨단 3지구에 자리함으로써 첨단3 지구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무역아카데미’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무교육 받으세요”

### 내일 중기·예비 창업자 대상 실시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챗지피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세계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는 2024년 무역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임직원, 예비 창업자 등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챗지피티와 Bing 검색엔진을 활용한 해외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과정을 시작으로, 식품

수출입의 모든 것(A to Z), 2024 글로벌 식품 트렌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활용한 수출마케팅까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한다.

오는 11일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교육은 챗지피티와 Bing을 활용한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과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누리집 팝업창(gj.kita.net)에 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정의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추후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출지원 사업 지원 시 가산점 혜택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마케팅 전략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전남 중소기업이 세계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주도하도록 무역 실무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5·18 조사위 보고서 왜곡 빌미 있다” 우려

### 강기정 광주시장 밝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사회 반발이 나오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조사 보고서에 대해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9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르면 10~11일 사이 만날 예정"이라며 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만남에서 오는 6월 26일 완료 예정인 종합(최종) 보고서 작성·의결 과정과 내용에 대한 지역 사회 우려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조사위 비상임 위원, 민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강 시장은 "한 예로 비상임 위원 등과의 간담회

에서 종합 보고서의 토대가 될 17개 과제별 보고서에 첨부되는 계급군 등의 진술서 가운데 장갑차에 깔린 사망자가 시민군의 차에 사망한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내용 등 왜곡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특히 이미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조차 개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5·18 왜곡 세력의 주장이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처럼 조사위의 4년간 조사 결과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고자 종합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서 그 토대가 되는 개별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우려할 내용이 많은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에 대한 염원을 뒤로 하고 오히려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조사 결과도 많은 만큼 조사위 위원장 등을 만나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 경쟁 통한 단일 의대 설립 지지

### 전남도 공모방식 등 추진 방향 찬성

전남지역 국립 의대 유치를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목표·순전대 간 경쟁을 통한 단일 의대를 설립키로 한 전남도 방침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통합 의대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 제정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경도, 매도 놓칠 수 있지 않느냐'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입장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공모방식으로 전남 국립 의대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전남도 추진 방향에 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집행위원회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이끄는 중심기구로, 의료계(조선대 의대 교수·전남약사회장), 경제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 학계(동아보건대 기획조정실장·전남연구원 연구위원·광주연구원 연구위원·정암대 사회복지학 교수), 관련단체(전남새마을회 회장·전국이통장연협회 전남지부장·도민명예기자·전남도 민원메신저·전남청년서포터즈)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장은 범희승 화순군립요양병원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집행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립의대 유치 활동과 추진 경과, 공모방식 변경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통합의대 방식은 제반여건상 물리적으로 어렵고 정부 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공모를 통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 뜻을 모아 공정한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해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범희승 공동 집행위원장도 "자금이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할 기회"라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동·서부권 화합 차원에서 통합 의대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법 제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료 취약지에 의대 설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어떻게라도 해서 유치해야 하는 절박함이 크다"고 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정책전문가, 경제계, 학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으로 꾸려져 국립 의대 유치를 주도하고 도민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국회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설명, 결의대회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대 입지를 공모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데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오는 16일 관련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유튜브 공모'

### 10월 28일까지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된 유기농 생태마을을 무대료 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이나 단체(4인 이내)로, 생태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매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홍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 소개,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과정, 도시민 대상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며,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신청은 이메일(don8781@korea.kr)을 통해 제출

하면 된다. 입상작 발표는 12월 3일 예정으로, 전남도 대표 누리집에 발표하고 개별적으로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 1편(500만원), 우수상 3편(각 300만원), 장려상 6편(각 100만원)을 선정해 12월말 전남도지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의 아름다운 유기농 생태마을과 그 가치를 전국으로 알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기농 생태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3년 말 현재 20개 시군에 유기농 생태마을 57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세무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